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실패 두려워 않는  
연구풍토 조성”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의 공통점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연구개발 풍토를 조성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과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GIST(광주과학기술원)를 찾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7천여 년의 농업시대를 거쳐 250년의 산업시대, 50년의 정보화시대를 지나 현재 융합기술시대를 맞이했다”면서 “융합기술의 핵심은 기초과학에 있고 이를 육성하는 좋은 대학이 지방에 많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 R&D 예산은 5조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5조원 규모로 국가과학 예산이 큰폭으로 늘었다”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블록 펀딩’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R&D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신생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 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김 위원장은 예산배분의 유기적 연계와 성과평가의 개방성확대 등 신뢰받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성화 대학과 전국의 출연연구소를 돌며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진사업과 우수사업을 꼼꼼히 평가해 향후 예산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연구주체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R&D 투자도 진행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30년과 앞으로의 3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중국이라는 기회와 위협요소를 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기술면에서 중국을 반 발짝 앞서면 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미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재와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를 가장 확실히 예측하는 길은 이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관통하는 단어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 시장, 가치 창출이 필요할 때다. 융합을 위해서는 개방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  
**문 동 민**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과 구직자간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같은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R&D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R&D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

지난 5월 호남권 연구개발 채용박람회 열린 전남대체육관에서 만난 문동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미스매칭 해소에 분주한 모습이였다.

문 과장은 지난 3년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파견 근무하다 올초 R&D인력양성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개발업무를 맡게 됐다. 산업기술을 한단계 끌어 올려야 하는 막중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문 과장은 현장에서 모범답안을 찾고 있었다.

이날 문 과장은 R&D 채용기업 모집에 힘을 쏟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직원들과 함께 현장면접이 한창 진행중인 행사장 곳곳을 살폈다.

문 과장은 “광주첨단산단에 위치한 전자부품 생산기업 대표를 만났는데 ‘쓸만한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면서 “R&D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우수한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과장은 또 “R&D는 기업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국

가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이라며 “현재 연구개발 지원예산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혁신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인 지난 2008년부터 캐나다에서 생활한 문 과장은 북미대륙의 심각한 취업난을 피부로 체험하고 왔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고용문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문 과장은 “당시 캐나다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됐을 정도로 이슈메이커였다. 하지만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으로 대처했다”며 “취업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없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문 과장은 이어 “취업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 사회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R&D와 같은 전문인력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취업 석박사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강계두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기초과학과 융합기술 접목도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 융합기술 선택 아닌 필수

최근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강계두 광주시경제부시장(57)은 한국의 기초과학과 융합기술 현실을 언급하며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융합기술은 두 종류 이상의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획기적인 기술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내는 컨버전스는 R&D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합기술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융합기술 발전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강 부시장은 독특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R&D 심장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을 역임했고 세계 사이언스파크협회(IASP) 국제이사회 이사로 한국 최초로 지명됐다. 이같은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강 부시장은 융합기술에 대한 신념과 애정은 확고하다.

강 부시장은 “통신기술과 IT인프라에 기반한 ‘정보화시대’를 지나고 다양한 기술과 산업간 창조적인 결합을 통한 ‘뉴컨버전스’ 시대가 다가왔다”면서 “융합전략을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

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부시장은 이어 “광주의 광산업은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손꼽힌다. 예를 들어 의료용 레이저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군사용 정밀기기, 정보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광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접목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결집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광주융합기술 아카데미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처럼 권위 있는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학계는 물론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영역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융합아카데미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또 “광주를 융합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매월 1회 국내외 석학을 초청해 미래융합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달 말에도 로봇을 주제로 한 융합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융합기술 기반인 기초기술연구와 산업기술연구가 상호 융합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